

- 제1호의안 : 1999년도 수지결산 (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2호의안 : 200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
- 제3호의안 : 건축물의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규정(안) 제정의 건
- 간사회에 위임
- 제4호의안: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 간사 : 이동춘(중임), 임성추/감사 : 김영식 대의원 : 강행생, 김한진, 이세환, 조길웅

건축계소식 archi-net

대학 건축학과 교육기간 5년이상으로

2001년부터

교육부는 지난 4월 9일 '내년부터 건축학과 교육과정이 5년이상으로 늘어나는 것 등을 포함한 2001학년도 대학원 학생 정원 조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건축가 교육기간은 최소 5년이어야 한다는 국제건축사연맹(UIA)의 권고에 따라 학부 5년제 건축대학과 2~3년제 건축전문대학원 등 대학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대한건축학회는 학부 5년제(설계교육중심), 학부 4년제(기존의 종합건축교육)+대학원 2년제(설계교육중심), 학부 4년제(건축학이 아닌 일반 학부)+대학원 3년제(설계교육 중심) 등 3가지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호서대, 2000봄학기 공개세미나

6월 13일까지

호서대학교 건축학부는 인문관 103호에서 2000 봄학기 공개세미나를 개최

한다. 지난 3월 28일 김승희(경영위치 건축사사무소 소장)의 "그물을 뚫고 날아가는 화살"을 시작으로, 4월 25일 김종훈(한미건설 대표)의 "CM사례의 고찰-KLCC,상암동월드컵주경기장-", 5월 23일 김순환(범건축 부소장)의 "ASEM무역센터의 구조", 6월 13일 하학수(정주건축 소장)의 "교회건축의 이론과 작품"에 대한 주제발표를 한다. 세미나는 오후 4시 30분에 시작된다. 문의 : 0418-540-5490

영남대, 건축공개강좌 및 전시회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는 매년 외부초청특강과 학과 교수특강의 건축공개강좌와 더불어 두 번에 걸쳐 영남대 건축작품전과 4학년 졸업작품전을 개최한다.

▶ 초청특강

- 4월 28일(금)오후4시
고주석(오이코스건축)/생태건축과 한국미학
- 5월 8일(월) 오후 3시
민선주(위가건축)/건축영역의 확장
- 5월 9일(화)오전 10시
승효상(이로재건축)/Urban Void
- 9월 25일(월)오후3시
곽재환(맥건축)/삶속의 5가지 집
- 9월 27일(수)오후3시
이종호(메타건축)/장소
- 10월 27일(금)오후3시
김봉렬(한국예술종합학교)/성리학과 서원건축

▶ 교수특강 및 전시

건축사시험

▷ 예비시험: 5월 14일

- 시험장소: 4월 27일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 공고

- 합격예정자발표: 5월 26일

▷ 자격시험: 9월 3일

▷ 기타: <http://www.kira.or.kr>

- 4월 7일(금) 석호태교수
건축에서의 환경문제
- 5월 8일(월)~13일(토)
건축작품전시회
영남대학교 박물관 아트스페이스
- 5월 26일(금)김철규교수
테크놀러지의 건축적 속성
- 6월 2일(금)권종욱교수
안도다다오의 지역적 건축
- 9월 15일(금)박종석교수
건축의 새로운 흐름
- 9월 25일(월)~30일(토)
졸업작품 및 논문전시회
영남대학교 박물관 아트스페이스
- 10월 6일(금)구본덕교수
학생설계작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 11월 24일(금)박성무교수
Hybrid구조시스템의 발전과 전망

건국대 건축전문대학원 특강

공대 1409호에서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에서는 매 학기 전공분야는 물론 사회, 예술, 문화, 환경 등 관련분야의 새로운 개념이나 이슈를 소개함으로써 설계 교육의 보다 현실적이며,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계의 유명인사를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으며, 오후 6시 공대 1409호실에서 열린다. 2000학년도 1학기 특강일정은 다음과 같다.

- 4월 4일(화) 유원재(다건축)/건축가의 수평적 사고
- 4월 11일(화) 김억중(한남대교수)/르코르부제 건축 형태 구성의 논리
- 4월 18일(화) 정지영(영화감독)/영화

를 읽는 방법

- 4월 25일(화) 이일훈(후리건축)/건축가 이일훈의 작업세계
- 5월 2일(화) 이완규(안동공고교장)/병산서원의 건축과 풍수
- 5월 9일(화) 정구호(디자인구호)/디자인 Resource
- 5월 23일(화) 김도경(경희대교수)/건축과 조경의 발전적 협력을 위한 방안 모색
- 5월 30일(화) 송민아(큐레이터)/경험과 표현
- 6월 2일(금) 임권택(영화감독)/영화 이야기
- 6월 13일(화) 박인철(조각가)/폐허의 미학

제18회 서울시건축상

금상에 '종로타워' (박승, 김창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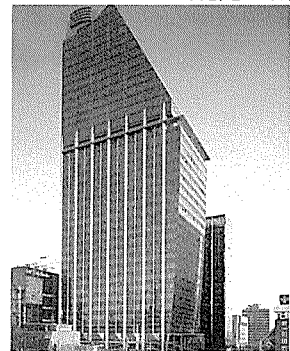
올해 서울시건축상이 발표됐다. 서울시에서 매년 우수한 건축물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는 이 상은 준공건축물 부문과 야간경관조명부문으로 나누어 시상된다. 올 해 준공건축물 부문에는 42점, 야간경관조명부문에는 12점이 응모한 결과, 준공건축물부문 금상은 '종로타워(설계:삼우설계)'가 선정됐고, 야간경관조명부문 금상은 '서울역사(설계:알토/이성재)' 선정됐다. 이밖에도 준공건축물부문에서 은상 2점, 동상 4점, 장려상 3점이 선정됐고, 야간경관조명부문에서 은상 1점, 동상 2점, 장려상 2점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5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시립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전시는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시립박물관에서 한다.

▷ 준공건축물부문
(42건중 10건 입상)

- 금상
- 종로타워/삼우설계(박승, 김창수)
- 은상
- LG강남타워아트센터/창조건축(김홍철)
- 서울특별시어린이집/힘마건축(서혜림)
- 동상
- 한빛은행본점/선진엔지니어링(김병년)
- 고려대학교국제관/무영건축(안길원, 원성재)
- 동아일보미디어센터/희림건축(이영희)
- 한남동다가구주택/삼우설계(김창수, 박승)



금상/종로타워



은상/LG 강남타워



은상/서울특별시어린이집

- 장려상
 - 종합무역투자정보연구센터/무영건축(안길원)
 - 데이콤빌딩/한울건축(이성관)
 - 국민대학교국제교육관/일건씨앤씨건축(최관영, 정동명)
- ▷ 야간경관조명부문 (12건중 6건 입상)
 - 금상
 - 서울역사/(주)알토(이성재)
 - 은상
 - 종로타워/(주)에너지
 - 동상
 - 한국중공업/(주)주원(장재만)
 - 현대백화점본점/나남전기(주)(이종일)
 - 장려상
 - 동아미디어센터/(주)케이피조명(김상도)
 - 동십자각/(주)알토(이성재)

21세기 건설생존 대토론회

3월 28일 르네상스호텔에서



21세기 건설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키위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장영수)가 주최한 건설산업생존을 위한 대토론회가 지난 3월 28일 르네상스호텔 3층 다이아몬드볼룸에서 학계, 연구계, 업계 인사 등 700여명

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건설산업은 왜 위기에 처해 있는가', '건설산업은 제값을 받고 있는가', '건설기술 경쟁정책이 존재하는가', '건설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등 4개부문에 대한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김경래 교수는 '건설산업은 제값을 받고 있는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발주기관의 확실적인 발주방식, 무계획한 사업예산산정, 권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 계약금액 조정의 어려움 등으로 정부가 정의하는 시장경쟁을 통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전혀 구축돼 있지 못하다"고 말하고, "이제 PQ적격심사의 낙찰률85%가 제값이나, 88%가 제값이나 하는 소비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경쟁력있는 업체를 선별할 수 있고 지나친 가격경쟁을 피하며 이들에게 제값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위한 논쟁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설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발표에서 동의대학교 경제학과 이재우교수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도외시한 채 제재강도만 높여온 건설정책은 처벌지상주의를 야기했으며, 인프라의 실패를 보정하기에는 취약한 제도, 기존업자에 포획된 건설업법 체계 등 총체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하고, "기술력을 가진 업체가 지명입찰, 기술입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간 M&A나 제휴, 공동도급을 지원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건설지원업의 기능을 강화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음성직 중앙일보 수석전문위원이 '건설산업은 왜 위기에 처해 있는가'라는 주제발표를, 이규재 대림산업 전무는 '건설기술 경쟁정책이 존재하는가'라는 주제발표를 했다.

제3회 건축백일장2000

5월 7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인천에서 유일하게 시민이 참여하는 건축 문화체험 프로그램인 <건축백일장>이 오는 5월 7일(일) 오후 1시부터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극장에서 개최된다. <건축백일장 2000>은 인천광역시 후원하고 인천광역시 건축사회 및 월간 건축인 poar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가족단위로 참가하여 살고 싶은 집, 갖고 싶은 집을 상상하여 제안하는 『글쓰기+그리기+만들기』의 경연대회다. 참가를 원하는 인천시민들은 물론 인근 지역의 누구라도 1팀당 2인 이상 5인 이하(가족단위 또는 친구들)로 팀을 구성하여 현장에서 선착순 등록(100팀 한정)하면 되는데 참가비는 없다.

건축백일장 본 행사가 끝나고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어지는 뒷풀이 공연은 휴일 온가족이 체험한 건축이벤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좋은 볼거리가 될 것이다. 또한 부상으로도 1등 장원팀에게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비롯, 총 30여팀에게 푸짐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다.

강석원, 김석철, 김종성 고려대 건축공학과 객원교수로

올해 신학기부터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는 서울건축의 김종성씨, 그룹가건축의 강석원 회원, 아키반건축의 김석철회원을 객

원교수로 초빙, 2000학년도 신학기부터 강의를 하게 됐다.

제9기「목조건축 설계기술교실」수강생모집

국민대 디자인대학원
목조건축디자인센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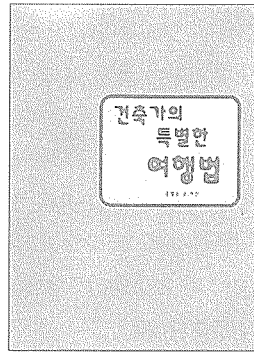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목조건축 디자인센터에서는 제9기「목조건축 설계 기술교실」수강생을 모집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국민대학교 강남 교육관에서 있을 이번 교실은 각 대학 건축과 교수 및 강사, 건축사, 주택시공사 대표, 주택관리업체 종사자, 주택재료 및 인테리어업체 종사자, 또는 자기 집을 짓기 위해 설계 및 기술이해 경험을 쌓고자 하는 희망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개강일은 오는 5월 20일이며, 강의는 매주 토요일 오후2시부터

5시30분까지 한다. 문의 : 02-2006-6212

신간안내

건축가의 특별한 여행법



인간이 숨쉴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의 공간들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건축가의 편견은 무엇인지, 좀 더 인간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 건축을 사회화시키는 방법과 문화로서 건축이 이해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시스템에 대한 견해들을 여러나라에서의 '건축여행' 체험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도시의 성격을 나타내고 이미 도시 자체를 상징하는 건축물, 도시와 문화의 역사가 그대로 남아 이야기가 있고, 걷고 싶은 거리와 머무르면 즐거운 공간, 삶과 휴식과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를 얘기한다. 이 책은 건축을 중심으로 여행을 하면서 느낀 도시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서양의 도시와 건축을 여행하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역사이기도 하고 더 많은 이야기들도 숨어 있다. 도시나 건축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우리의 축적된 시간이나 환경을 더 파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런 안타까움과 우리 도시에 대한 애정은 다른나라 사람들의 도시와 건축을 빚대어 이야기하고 있다.

홍성용지음/324쪽/1만6천원/도서출판 발언 발행(02-929-3546)

한성엔지니어링, 회전문 왕스타

회전문 국산화 선도 기업인 (주)한성엔지니어링(대표 한현호)이 세련된 디자인과 실용성이 겸비된 회전문Wingstar Revolving Door로 수입품이 대부분이던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십여 년 동안 최상의 전문인력으로 단일품목인 회전문만을 생산해 온 (주)한성엔지니어링은 수입품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회전문을 국산화 하는데 성공한 기업이다.

회전문은 대형건물에서 품격있는 주현관을 위해 그 기능성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감각을 함께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 (주)한성엔지니어링의 주력모델인 Wingstar Revolving Door는 완전 일체형으로서 회전문 캐노피(Canopy)

의 대형화 및 곡선미가 어우러져 볼륨감과 함께 미려한 디자인을 갖춘 주현관을 형성할 수 있다. 또 라운드에 의한 4면 S자형 타입의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순간적인 풍압에도 원활한 회전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별도의 기계적인 조작 없이도 손쉽게 도어를 겹친 후 중심축을 한쪽 끝으로 이동시켜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차량도 출입이 가능할 정도로 공간이 확대된다. 왕스타 자동회전문은 유사시 수동 전환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 아무런 조작 없이 바로 수동으로 전환되어 출입에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 회전 속도조절도 가능해 장애인이나 노약자 출입시

신소재

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고안된 제품이다.

(주)한성엔지니어링의 대표 한현호는 「오랜 경험에서 얻어진 많은 노하우와 장인정신으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여 당당히 회전문의 수입대체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주)한성엔지니어링은 회전문 업계 최초로 I.S.O.9002 품질 인증을 획득하기도 하였다. (주)한성엔지니어링의 왕스타 회전문은 인체공학적 설계와 고품질의 자재를 사용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과 엄격한 건축 조건을 만족시키는 섬세한 공법으로 제작되어 건축물 및 건축설계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 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0341-986-7220)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바대로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부근에 세워질 ‘천년의 문’ 설계경기 결과가 발표되었고, 당선작에 대한 표절시비 등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시시비비에 대하여 주관처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우려하며 포아비평가포럼(의장 이종건)은 ‘천년의 문’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문의 : 포아비평가포럼(02-2637-3890)

문제제기

정부가 ‘새천년준비위원회’ (위원장 이어령)를 앞세워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년의 문’ 프로젝트가 국민적 관심을 기반으로 쾌조의 출발을 하는 듯 보인다. 이미 그 첫 번째 문이 공개 경쟁을 통해 선정되어 지난 2월 19일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향후 국민의 성금으로 건립비용의 상당액을 추렴하겠다는 이 거대한 인공구조물이 정작 국민 대다수의 관심권 안에서 설득력있게 추진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우리 포아비평가포럼(의장 이종건)은 ‘천년의 문’ 프로젝트가 안고 있는 기발한 착상의 배면에 도사리고 있는 침소봉대의 현실인식을 근간으로 이 프로젝트의 무모함을 우려하며 차제에 건립계획을 백지화하는 국민적 운동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1. ‘천년의 문’은 20세기말 문화관광부와 서울특별시의 급조된 기념조형물과 ‘평화의 탑’ 건립계획의 중복과 그로 인한 낭비요인을 국가 차원에서 흡수 통합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제안된 것으로 앞서의 두 경우 모두 그 발상의 당위를 논의하기 이전 단계에서 부랴부랴 이루어진 전형적인 관치주의적 프로젝트로 그것이 실로 21세기를 맞는 국민의 여망을 담은 것이었는가에 대한 충분한 반성이 따라야 한다.

2. ‘천년의 문’ 건립부지인 난지도는 새천년준비위원회가 인식하고 있듯이 ‘쓰레기 매립지로 지반이 약해, 탐쳐

럼 높은 건물은 부적당하기 때문에 계속 지반을 다져가면서(20-30년간) 건립해야한다는 부지의 현실적 상황을 무시하고 ‘문’이란 명호가 무색할 정도의 거대한 구조물(당선작 구조물의 높이가 200미터 초과)을 그 자리에 건립하겠다는 것은 이 프로젝트의 성립이 전체주의와 물신주의에 물들어 있는 우리 사회의 앞뒤가 맞지 않는 판단의 임계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이 프로젝트의 무모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 국민의 성금을 근간으로 하는 ‘천년의 문’은 그것의 존재가 ‘세계의 중심’을 의미짓는 것이며, ‘세계로 평화를 보내는 정보의 발신처가 된다’는 문학적 수사와 환상으로 국민 다수를 더 이상 현혹시켜서는 안 될 일이다. 21세기의 세계지도는 특정한 오브제를 통하여 중심이동이 되는 단순 극의 세계가 아니라 이미 정보의 발신과 수신이 자유로운 다극으로 전환되어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오늘의 인식조차도 수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발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프로젝트가 더 이상 ‘국민적’ 운운 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은 거두어져야 한다.

4. 안타깝게도 힘들어 뺏아놓은 당선작이(우대성+이은석 외 공동작) 표절시비에 휘말려 건축과 문화계에 비웃음을 사고 있는 오늘의 정황을 놓고 보면 건대 이는 ‘천년의 문’이란 테마의 설정 자체가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창의 정신을 기반으로 출현했다기보다는

20세기말 새로운 세기와 새천년의 개막을 자국의 신자본중심적 문화공간으로 설정하여 조성하고 있는 타국의 선례를 무비판적으로 뒤쫓아가는 주체성 결여의 연장선상에서 구상될 때부터 이미 그 원초적 표절의 혐의를 배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에 우리는 당선작의 표절시비가 전문가 사회의 정확한 판단의 경로를 통해 사회 일반에 공개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시비의 결과가 당선작가 또는 심사위원회를 포함한 새천년 준비위원회의 과실로 판명된다면 이들의 책임있는 퇴진을 요구한다.

5. 우리 정부와 국민이 IMF의 사슬에서 여전히 자유할 수 없는 작금의 상황을 놓고보건대 국민성금을 포함한 300억원대의 이 같은 대형 프로젝트의 구상은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우리의 주변에는 최저생계비조차 벌기가 막막한 빈민층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이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구호비에 나랏돈이 쓰여지고 국민의 땀자돈이 모아져야 할 것이며, 또한 거대 구조물을 통한 ‘21세기형 다목적 복합조형물’이라고 하는 미래의 문화장치에 강제된 도시경험에 앞서 난지도라고 하는 재생의 땅이 진실로 재활의 경로를 찾을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땅의 프로그램을 통한 생태계의 진정성을 경험할 수 있는 친환경 경험의 땅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천년의 문’ 프로젝트는 전면 재고, 파기되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